

손자·손녀들 맞으러 거실을 크게 설계했죠

● 강진군 음천면 강성락·이스미자씨 전원주택

강진군 음천면사무소에서 영암방면으로 가다보면 활성산 아래 8가구가 웅기웅기 모여있는 구곡마을을 만나게 된다.

달이 뜨는 밤에 마을을 보면 그 형태가 비둘기 집을 닮았다고 해 '등구실(燈鳩室)'로도 불리는 이 마을엔 '황죽현(黃竹軒)'이란 문패가 붙은 예쁜 전원주택이 자리잡고 있다.

'황죽현'은 강성락(67)·이스미자(65)씨 부부가 황금빛 노년을 보내고 있는 보금자리다. '황죽현'은 집 뒤에 대나무 밭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50평 대지에 35평(건축비 평당 150만원) 규모로 들어선 강씨 부부의 전원주택은 전형적인 미국식 조립 주택이다.

마을에서 약간 높은 지대에 자리한 '황죽현'은 대나무 숲이 감싸고 있고, '월곡재'라는 마을 저수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50평 규모의 화단엔 동백나무와 치자나무, 감나무 등이 심어져 있다. 그 한편에선 3년전 가족으로 입양한 진돗개 '똥순이'가 손님을 반갑게 맞이한다.

집 내부는 큰방과 작은방, 거실, 욕실로 구성돼 있는데 집 규모에 비해 방 크기가 작고, 거실이 매우 넓은 게 특징이다. 주방을 겸비한 거실은 20여평에 이른다. 1남 3녀를 모두 출가시킨 강씨 부부는 18명에 이르는 자녀와 손자, 손녀들의 방문에 대비해 거실을 크게 꾸몄다고 한다.

강씨는 "7년전 미국 시애틀에 있는 여동생 집에 갔는데 넓은 거실이 너무 마음에 들어 거실 만큼은 크게 설계했다"며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자식들이 방문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고 말했다.

강씨 부부가 이곳에 동지를 트는 것은 지난 2002년 11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남지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 98년 명예퇴직 이후 전원생활을 준비했다.

아내 이씨가 지난 67년 첫 딸을 낳고부터 수십년째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을 겪어온 터라 물 좋고, 공기 좋은 시골마을로 이주를 결심한 것이다.

아내 이씨는 이곳으로 이주할 당시만 해도 걷기마저 힘들 정도로 쇠약했다고 한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건강을 되찾더니 이제는 마을 뒷산에서 나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건강해 졌다.

강씨는 "그동안 아픈 아내를 위해 전국에서 유명한 병원이나 한의원 등 안 찾아가본 곳이 없었다"면서 "그런데 전원생활 이후 건강을 되찾은 아내를 보니 신기하고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강씨의 또 다른 즐거움은 직접 기른 채소 등으로 먹거리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강씨의 한달 평균 생활비는 20여만원 정도인데 전기요금 10만원, 인터넷 이용료 3만원, 그리고 자녀들과의 잦은 통화 탓에 전화요금은 5만원 안팎이 든다.

수도요금도 뒷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무료고, 반찬 등도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충당한다. 마을 인심이 후한 탓에 쌀도 주민들이 갖다 줘 전원생활 이후 쌀을 사본적도 없다.

강씨는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생활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달 20만원이면 만족스런 삶이 가능하다"고 했다.

어느 새 넘겨간 시골 인심이 몸에 배인 강씨는 돌아서는 취재진에게 직접 담긴 대나무 죽순주 한통을 손에 쥐어줬다. "시골이라서 쓸 것은 없고, 서운해서 그러니 받아오. 그리고 꽃피고 숲 우거지는 따뜻한 봄에 꼭 한번 놀러 오시구려. 이곳이 바로 천국이니까요."

/강진=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강성락·이스미자씨 부부가 다정히 손을 잡고 집 주변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강성락씨 부부가 추천한 노년층 전원생활 노하우

◇ 가능하면 마을내에 집을 지어라.

전원생활을 계획할 땐 혼자서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꿈꾸는데 현실은 다르다. 마을에서 떨어져 지내면 시간이 흐를수록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특히 노부부의 경우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마을내에 거주하는 게 좋다.

◇ 주민들과 가까이 지내라.

전원생활의 성공 여부는 마을 주민들과의 융화에 달려있다. 시골엔 아직도 특유의 텃세가 남아 있는데, 마찰을 자주 빚게 되면 단 하루도 살기가 힘들다.

◇ 집은 30평 이상을 넘지 말고, 텃밭을 확보하라.

집이 30평을 넘으면 청소 등 관리가 힘들다. 시골집 30평이면 도시 아파트 45평으로 생각해야 한다. 정원 외에 100평 이상의 텃밭도 보유하

는 게 좋다. 전원생활은 한 달만 지나도 약간 따분해진다. 텃밭에 채소 등을 심고 가꾸면 그 재미가 아이들 키우는 재미와 맞먹는다.

◇ 방은 작게, 거실은 넓게 설계하라.

전원생활에서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방은 단순한 침실로 생각하면 된다. 거실이 넓으면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방문할 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손님이 찾아와도 유용하다.

◇ 문턱을 없애고, 욕실 등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갖춰라.

노 부부들은 문턱이 있으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가구 등 물건을 이동하는데도 걸림돌이 된다. 또 바닥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해 낙상 등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게 좋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강성락·이스미자 부부가 정원에 심어놓은 치자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있다. 멍든 곳에 바르면 효과가 있다는 치자 열매는 시골 생활에 꼭 필요한 구급약이다.

SONY New BRAVIA SONY

고객감사축제·TV중고보상판매

소니를 구입해 공짜 비데 TV라도 바꿔주세요!!

무시리즈 고객만족 행사

- W시리즈 가격인하: X3000시리즈 | 15~30만원 상당품 증정 or 할부결제 특약 증정
- X3500시리즈 | 30만원 상당품 증정
- W시리즈 30만원 상당품 증정 or TV보정
- X3000/3500시리즈 | 50만원 상당품 증정 or TV보정

062-522-2000

소비자 만족도 1위!!

무등산업 (주) 371-7095

011-601-7701